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1 제직회: 1부 예배 후 이어서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2 당회: 2012년 1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3 교육: 다음 주 예배 후 제직 훈련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4 성경통독: 신약성경 1독을 위한 성경통독이 있습니다. 일시: 2.14(화)-16(목) 오전 9시 40분 - 오후 2시 40분 장소: Chapel Room 회비: 30불(점심값).

5 신청: 바누아투 학생을 위한 후원자 신청을 다음 주에 받습니다.

6 인도자: 각 공동체 인도자 모임이 2월 5일 1부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7 모임: 1남 선교회 정기 모임이 내일 (23일) 오후 7시에 포비엔(Pho Bien, Glenfield)에서 있습니다.

8 열심: 선교회 임원단과 찬양대원, 교사들은 수요예배에 열심을 냅시다.

9 총회: 4여 선교회 임원단입니다. 회장: 김현주, 총무: 김순자, 회계: 김영옥

10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1 득손: 정진택 집사 (정옥자 권사) 가정 손녀(2녀)를 얻었습니다.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해외 선교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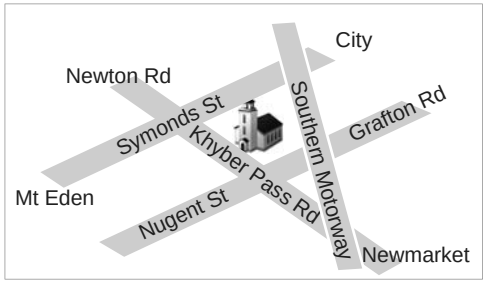
국내 선교

밀알장애우 봉사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1월 22일

14권 4호

교회창립 1999/07/14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영(靈)의 시대 - 이태한 목사

중년에 이른 분들치고 드라마나 영화의 사극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해를 품은 달'이라는 사극이 신년 벽두부터 높은 시청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제목에 시비를 걸 생각은 하등 없지만, 달이 해를 어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사극들은 어느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에 근거한,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한 작품들이라면 이 작품은 소설을 사극 드라마로 만든 작품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철저한 작가의 상상력 일 뿐입니다. 물론 왕권을 둘러싼 이전투구의 모습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 드라마의 주 내용이 무녀를 중심으로 한 주술적이고 그 주술적인 것을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각색한 탈 현대적인 판타지형 드라마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설을 쓴 작가나 TV 연출가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 글을 쓰고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세상으로 나오면 더 이상 작가나 연출자들의 손에서 떠난 이미 독자나 시청자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비 신앙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런 퓨전 드라마가 결코 우리 신앙에 그 어떤 도움은커녕 오히려 사악한 영들의 장난에 불과한 속임수임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이런 불건전한 대중 매체들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와 판단을 제시하여 성도들이 분별력 있고 건전한 시각을 갖도록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신년 벽두부터 우리들의 영을 어지럽게 하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기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무신론을 최우선 국가의 정책으로 삼는 구 소련권에 영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다. '붉은 나라의 영적 혁명, 소련권의 4차원 과학'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물질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미신업자의 수가 세계적으로 과거 15년간에 3배로 불어났고 합리주의를 지나 신비주의가 휩쓸고 초과학, 초자연, 초인간 등 심령 과학의 홍수가 터진 느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계 곳곳의 대형 책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심령 과학이나 귀신 이야기입니다. 강신술, 마술, 주술이 풍미하고, 신흥 종교가 날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성령이 아니면 악령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신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창세기 35:2-3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7장	다함께
※ 성시교독	8. 시편 14편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365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덕철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6:1-7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갈등을 극복하는 공동체	이태한목사
찬송	488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목사
찬양 / 심창진목사
기도 / 김정민집사
성경봉독 / 눅1:76-80
설교 / 하나님의 긍휼/ 심창진목사
찬송 / 하나님의 음성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대
기도 / 경덕현집사
성경봉독 / 삿6:14-24
설교 /사사 기드온 2/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46장
주기도 / 다함께

⊙ 1월 교회일지

신년주일:
1월 1일 (주일)
전교인 수련회:
1월 7일 (토)
- 1월 8일 (주일)
제직세미나:
1월 29일 (주일)

⊙ 1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이광희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
주방봉사
한상순/김재연/ 장태옥/오지연

⊙ 기도순서

다음 주일 1부:	이동술 집사
다음 주일 2부:	박영태 집사
이번 주 수요기도:	경덕현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한누리 집사
2월 5일 1부:	최득수 집사
2월 5일 2부:	박후임 집사
2월 1일 수요기도:	구미희 집사
2월 1일 애찬기도:	최현철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1.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새해에 다짐한 결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직장과 직업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2. 모든 모이기에 힘쓰고 경건한 삶에 우선 순위를 두어 교회 안의 예배가 삶속에서의 예배로 이어져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도록
3. 항암치료 중인 기섭이에게 신약 항암제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암제로 인하여 다른 장기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이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4. 이번 주부터 개학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겸손함이 있도록, 방학을 잘 마무리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새해의 기도

- 송영옥 작가(영문학 박사, 영남신대 외래교수)

하나님
생명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당신 밑에서
이 새날 다시 무대에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독주자가 아닐 지라도
제 연주 부분이 너무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지라도
찬란한 존재인
당신세계의
하모니를 위하여
나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빠른 템포에 쩔쩔메는 콘트라베스처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서툰 바순처럼 우둔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힘차게 손을 드는
당신을 처다볼 때
아 아
나는 기쁨에 겨워 전율 할 것입니다.

이따금 침묵 속에 서 있다가
신나게 북을 두드리겠습니다.
독주바이올린이 연주하는 동안은
기다리며
숨죽이는
무음의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당신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된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새날의 하루 하루를
이 벅찬 감동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제몫의 시간을
연주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생명 오케스트라이다. 새해에는 빛나는 존재인 그분의 지휘 아래 우리 모두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연주해 보자.

그분에게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은 광휘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크리스천 투데이)